

2009
2024

시론 02

허상(虛像)

답사기 03

답사동호회 답사기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중국 장쑤성 감찰설계행업협회 건축교류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 개최
전북 전주시, 전시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모 당선작 발표
한 장의 사진 _ 동백섬에서 바라본 달맞이언덕

광주 지역 뉴스 06-07

남승진 교수, 광주 동구 총괄건축가 위촉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제26회 미술전' 개최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차 회원 임시총회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8-09

제3기 전라남도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초록우산 전남본부에 400만원 후원
전남건축사회, 목포아동원 후원 물품 전달식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10-11

금상(사용승인 부문 비주거 분야) '작은문화공간 카페 든손 + 작은책방 책든손'
은상(사용승인 부문 비주거 분야) '박종혁 믿음병원'
은상(사용승인 부문 한옥 분야) '석명정'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철길마을 문화플랫폼'

광고 12

회원광고

TH

by. Kim Mi-ri Architect

건 축 문 화
사랑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11.180호

광주 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온라인 전환' 사전공지

- 정보 소비 습관이 디지털로 이동, 편의성 증진, 비용절감 등
신문발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온라인 전환'합니다.
- 온라인 전환 개시일 : 2025년 01월호
- 변경 사항 : 1) 종이신문 제작 및 발송을 중단하고, 회원
이메일로 뉴스레터 및 PDF 제공
2) 인스타그램에 '건축문화사랑 신문' 업로드 예정

허상(虛像)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ybdsc@naver.com

1993년부터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옥,
생태건축, 국가유산
실측설계에 전념하며
여러 간행물에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건강한 집,
건강한 생활」, 「삶과
건축」 등을 연재하다.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전주한옥마을
(공저)」 등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저 무변광대한 시공간(時空間)을 ‘우주(宇宙)’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우주는 시간을 함축하는 ‘우(宇)’와 공간을 상징하는 ‘주(宙)’의 합일(合一)로 믿었던 것 같다. 게다가 또 시간을 나타내는 ‘세(世)’와 공간을 표현하는 ‘계(界)’를 합쳐서 당시 세계관(世界觀)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래서 옛날 서당 학동들에게 천자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을 그렇게 수없이 되뇌게 했는지도 모른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바둑이’로 글을 깨우치던 우리 현대인들과는, 어쩌면 우주(宇宙)와 세계(世界)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와 세계, 즉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뒤바뀐 것 같지는 않다. 최근 과학의 빛나는 성과로 인해 우주여행까지 꿈꾸는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과 공간은 미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건 저 먼 옛날부터 시간과 공간이 분명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외부대상을 오직 오감(五感)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이 시간 자체를 직접 체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시간의 흐름도 단지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숫자와 또 시계 바늘을 통해서 가늠하는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뇌에 저장된 지나간 날의 기억이나 사진 등의 수단을 통해서 시간을 의식하거나, 일출 또는 일몰 직전의 장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간의 존재를 일부 체험할 뿐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과거와 미래는 실재(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한다고 했으랴. 게다가 현재 역시, 순간적으로 명멸하는 ‘찰나(刹那)’라고 한다. 그런데 그 찰나조차 “1/75초(0.013초)”에 불과하다고 하니, 현재는 그저 “눈 깜짝하는 순간”인 셈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현재조차 찰나라니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우리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공간을 ‘직접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공간을 ‘간접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0세기 초, 과거 수 세기 동안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을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삼았던 뉴턴의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아인슈타인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급기야 시간

이란 상수(常數)가 아니라, 블랙홀(Black hole) 근처에서 점점 느려지다가 그 중심에서는 마침내 멈춰지는 등, 시간은 극히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변수(變數)로 작동된다고 한다. 그 후 물리학의 중심이 아인슈타인을 거쳐 닐스 보어(Niels Bohr)의 ‘양자역학’으로 급속하게 이행되면서 변화는 더 증폭되었다.

양자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어쩌면 이 우주(宇宙)와 이 세계(世界)가 송두리째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는 혁신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립자(量子)의 세계를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이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땅에 기초를 파묻고, 기둥과 보와 도리를 하나둘 차례로 걸친 후, 마침내 지붕까지 덮어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서 이 황량한 우주에 또 하나의 소우주(공간)를 창출해온 우리 건축……, 또 때(시간)가 되어 그 해체과정까지 도맡았던 우리 건축……, 그렇게 시공간(space time)을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의 흔적을 차곡차곡 축적해오던, 그동안 우리의 작업과정은 무엇이었던 말인가? 아니, 이게 비단 우리 건축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충격은 적잖게 다가왔다.

구석기시대의 주거지였던 동굴에서 흙쥌 뒹쳐나와 땅을 파고 수혈(竪穴) 주거를 처음 창안한 이래, 여러 기술과 지혜를 번득이면서 오늘날의 이 굳건하고 다채로운 ‘기념 건조물(monuments)’로 구축해온 우리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도, 사실은 실체가 아닌 허상(虛像)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 여파는 자못 심각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일점일획(一點一劃)을 더하거나 덜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소우주를 창출한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마저 모호한 구석으로 그만 처박히고 만 것이다.

그렇다고 달리 뵈죽한 대안은 찾을 수 없었다. 비록 ‘허깨비’로 쌓은 물리적 현상이 이 우주의 진면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 실존하고 있다는 이 ‘의식’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때로는 공간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공간을 비워내기도 하면서, 이른바 ‘공간(space)을 설계하는’ 우리 건축사(建築士)들의 응전(應戰) 역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

지금 나의 뇌리에 몰아닥친 이 혼란도, 어쩌면 바다라는 거대한 배경을 무대로 “잠시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파도가 좀 잦아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 해변을 벗어나 보고 싶다. 어쨌든 다시 어김없이 다가온 이 세밀을 목전에 두고, 긴 여정을 함께 해온 우리 건축사들의 안녕과 건투를 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외 회원 일동

건축문화

사랑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작 ‘화성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대한건축사협회

답사동호회 답사기

김미리 건축사 / 미리미터 건축사사무소 (광주)

일하면서 교육이나 답사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답사동호회 일원이 되면 건축에 대해 배움이 있을 거로 생각했고, 첫 1박 2일 답사는 그런 생각에 제일 부합했다. 이번에 가는 강릉은 너무 먼 곳이고, 언제 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곳이기 에 시작부터 설렜다.

미술관

언덕 위를 오르며 거대한 백색의 건축물을 마주하는 순간, 미술관설계를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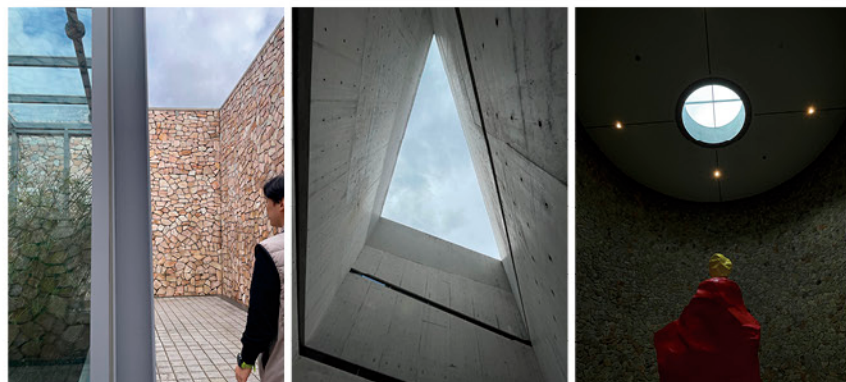
마이어 파트너스의 작품이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은 메인 홀의 전면과 후면의 유리창을 통해 속을 내비치며 무게를 덜어낸다.

각각의 공간은 천창과 측창을 통해 자연광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재개관 준비 중이라서 내부는 볼 수 없었다. 인근 아파트의 기부채납으로 건축되었다는 배경을 들었고 그것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부러웠다.



건축물과 자연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보이는 잔잔한 (물) 위의 건축물, 창문 혹은 슬릿 사이로 쏟아지는 (빛)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로 보이는 중정의 (하늘)〉
글 사이사이마다 단어를 배치한 것처럼 뮤지엄 산 곳곳에 자연이 자리했다.



지역성과 고유성

‘안도는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를 가장 좋아하며 좌우 비대칭적인 담장 축조 방식 등에서 〈간결함〉의 미학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얻었다.’ (책 ‘안도 다다오, 건축을 살다’ 중)

이 책을 읽은 후의 답사는 훨씬 인상적이었다. 그가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녹이려고 했는지 한국인이 나보다 더 한국인 같다. 존경심과 더불어 질투심까지 생긴다.



초당 성당

한국 건축의 1세대, 김중업의 건축물이다. 원형의 마당에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 조형물 사이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들어선다.

외벽과 본당 사이의 좁고 어두운 벽을 따라 순환하는 복도는 고요한 빛을 받으며 걷는 순례자의 의미를 담으셨을까?

종교가 가져야 하는 순수 의미가 이날의 날씨 탓인지 건물의 초입부터 채찍으로 느껴진다.



뮤지엄산

안도 다다오의 건축 전부를 옮겨 놓은듯한 뮤지엄 산은 그의 건축관을 따라 답사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의 건축, 기하학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은 근원적 도형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간화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직육면체의 본관들 사이로 네모는 파피루스 온실, 세모는 삼각코트, 원형은 백남준관이 자리한다.



답사 후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의 지역성과 고유성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내가 사는 광주는 ‘빛의도시’이고 ‘문화도시’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노잼도시’라고 부르는 것일까?

노력하지 않은 것도, 만들지 못한 것도 아니다.

역사의 아픔을 문화로 극복한 도시로서, 5·18의 아픔을 문화로 승화하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있고, 시대의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타이거즈가 있고, 비엔날레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나 그 건축물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매력적이고 상징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상징적인 문화가 부재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현실이 문화도시와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매력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이 광주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이 담겨야 할까,

광주에서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박성준 외 회원연례총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미숙 외 회원연례총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최원식 외 회원연례총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영철 외 회원연례총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필서 외 회원연례총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한묵 외 회원연례총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경섭 외 회원연례총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장 현상훈 외 회원연례총회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양정식 외 회원연례총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정병거 외 회원연례총회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김종도 외 회원연례총회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한민규 외 회원연례총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열 외 회원연례총회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이경일 외 회원연례총회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송동훈 외 회원연례총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정일현 외 회원연례총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현군출 외 회원연례총회

다원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28, 4층
Tel. 063-224-1492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78-5 / 대지면적 : 290.90㎡ / 건축면적 : 123.93㎡ / 연면적 : 148.93㎡
규모 : 지상 2층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치장벽돌, 아연도강판(ZINC), 미장노출콘크리트

동측과 남측이 긴 모양으로 도로에 접한 10M 길이의 코너 대지이다.
10M 도로 끝에는 6층의 근린상가가 이미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 채광 문제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대지의 단차 또한 1M 이상이었다.
접근과 연결, 개방과 차단...
건축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로망과 현실의 제약들이 적절히 어우러져 만족할 만한 최선의 선택이 된 것 같다.
외부의 제한적인 환경조건을 고려한 닫힌 듯 열린 안마당과 안마당을 향해 열린 각 공간들처럼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PS. 그토록 원하던 2층 가족실에서 폭포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가족을 생각하니 문득 행복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중국 장쑤성 감찰설계협회 건축교류
건축으로 피어난 16년의 우정, 장쑤성 감찰설계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만남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장쑤성 감찰설계협회(江苏省勘察设计行业协会) 대표단 15명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양국의 건축문화와 도시재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 감찰설계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 간 16년째

이어지는 국제교류로 건축 설계와 도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류회의 개최식에서 장쑤성 대표단을 이끈 주이(周屹 Zhou Yi) 단장은 “올해는 장쑤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정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이번 교류로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히, 도시 재생과 역사적 건축물 보존, 그리고 녹색 건축 기술을 이번 교류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며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가 건축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쑤성은 비슷한 건축적 고민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 건축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이번 교류는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장쑤성 방한단은 강소성 회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에 출품한 한·중·일 건축작품전을 비롯한 전시작품을 둘러본 후, 방한 기간 중 전라감영과 한

옥마을, 완주군 화엄사, 송광사, 아원고택과 새만금 방조제, 군산 근대역사지구 등 도내에 소재한 전통 및 근대 건축물을 둘러보며, 옛 건축물의 보전과 계승을 통해 현대 건축과 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재생과 친환경 건축 기술에 관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건축사들이 영감을 주고받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 개최
전북자치도, 분야별 수상작 50점, 상장과 총상금 1,320만원 수상



(사진 = 전북건축사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29일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이성열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

서 회장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번 수상작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건축학과 대학교수 및 건축사회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50점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용승인 부문 수상작의 경우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건축주에게는 동판을 수여하고, 학생 부문과 건축 드로잉·사진 부문 수상작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건축문화상 수상작들의 작품은 건축문화제가 열리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전시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장쑤성 탐사설계업협회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전북자치도를 방문해 한중일 교류작품전 전시를 관람하고 양국 간의 문화와 기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도 가졌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건축문화제는 올해로 25회를 맞아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더한 전북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건축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은 단순한 공간, 구조물이라기 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종합예술이라고 여긴다"며, "건축문화제를 통해 멋과 쓰임, 문화적이면서 기술적인 건축문화에 도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축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금 되새기고, 도민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모 당선작 발표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이길환 건축사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사진 = 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지난 18일 전주시도시혁신센터 1층에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에서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이길환 건축사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전주컨벤션센터와 주변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대규모 전시, 회의 등 행사 시 내·외부 동선을 제시했다. 또한 옛것을 보존하고 과거의 지혜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은 '지붕산수'의 콘셉트를 제안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는 당선작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 MICE복합단지의 핵심이 될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해 오는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시컨벤션센터 내부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등이 갖춰진 국제회의 시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난 60여년간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지어진 종합경기장은 과거 전주의 심장부였다"면서 "새로이 조성될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MICE복합단지는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어린이 집 그리기 및 건축백일장 대회' 개최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전북여성건축가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4 어린이 집 그리기와 건축백일장 대회가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북도내 소재 초등학교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그림그리기 100여점, 백일장 40여점이 접수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도내 건축문화발전과 장래 우수한 건축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김혜수 건축사 / 혜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6-15, 102호
- 전입
- 문고리 건축사 / (유)에스디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 10, 101호
- 변경(소재지)
- 문창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엠 / 전북 군산시 미장안9길 14, 202호
- 정완수 건축사 / 그리다 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권원왕궁1길 21-3, 2층
- 조수민 건축사 / (주)베르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104-12, 301호
- 박백순 건축사 / 짓다101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검다메2길 10-3, 2층
- 오경택 건축사 /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9, 501호
- 박 훈 건축사 /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9, 501호
- 결혼
- 장근홍 건축사 / 살롬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10월 26일(토)
- 여규재 건축사 / 영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10월 26일(토)
- 부고
- 차승조 건축사 / 우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7일(월)
- 김용안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12일(토)
- 김관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마스 / 모친상 - 10월 13일(일)

한 장의 사진 _ 정범수 건축사 作 / 남북 건축사사무소(전북)



동백섬에서 바라본 달맞이언덕
부산광역시 / 2024년 7월 6일



제주 화순리 주택
소상용 건축사 / 소아키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침단파기로208번길 17-13, 3층 301호
Tel. 010-9434-6289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74-11 / 대지면적 : 400.00㎡ / 건축면적 : 79.59㎡ / 연면적 : 145.70㎡
건폐율 : 19.90% / 용적률 : 36.43%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전벽돌

남승진 교수, 광주 동구 총괄건축가 위촉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건축 및 도시 경관에 대해 자문



(사진 =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은 지난달 10일 광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남승진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남승진 신임 총괄건축가는 동아보건대 건축과 교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도시분쟁위원회 위원, 건축·경관·공공디자인심의 위원 등을 역

임하며 광주의 도시경관 및 공간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동구 도시공간 환경 조성 사업의 통합 운영에 나선다. 특히 건축, 도시 및 경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자문 및 방향 제시, 공공 및 민간사업의 기획·설계·공사·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남승진 건축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동구만의 가치가 묻어나는 통합 도시 건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제26회 미술전' 개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회장 이경탁)는 지난 11월 4일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제26회 미술전'을 개최 후 15일까지 약 30여 작품을 전시했다.

개막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미술동호회 회원, 북구청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축하사에서 “구민들에게 훌륭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축사 미술동호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도 “미술동호회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25년 2월 27일(목)에 기념전시회를 무등갤러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차 회원 임시총회 개최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강필서 회장)는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와 장학기금 지원을 유지하고자 오는 11월 29일 (금)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호의안 회칙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연·기금 납부금액 회원 1인당 납부한도 하향 변경, 장학금·복지 수혜금액 조정, 적립된 회원 요청 시 개인연금 일부 지급 시기와 금액을 신설, 수혜제한에 관한 당해연도 결산기준 변경 등)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금제도의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제7회 도시주택포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인구감소의 시대, 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건설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남도일보·남도비즈가 주관한 '제7회 도시주택포럼'이 지난 4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기집 광주전남도회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도시주택·도시개발 전문가와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7회 도시주택포럼은 '인구감소의 시대 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건설산업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기조 발제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 등 지방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주택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금호 전남대 공과대학장은 ‘인구감소시대 주택건설산업의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복합적 공간구조는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외곽 개발 방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거점 중심의 집약화 등 콤팩트 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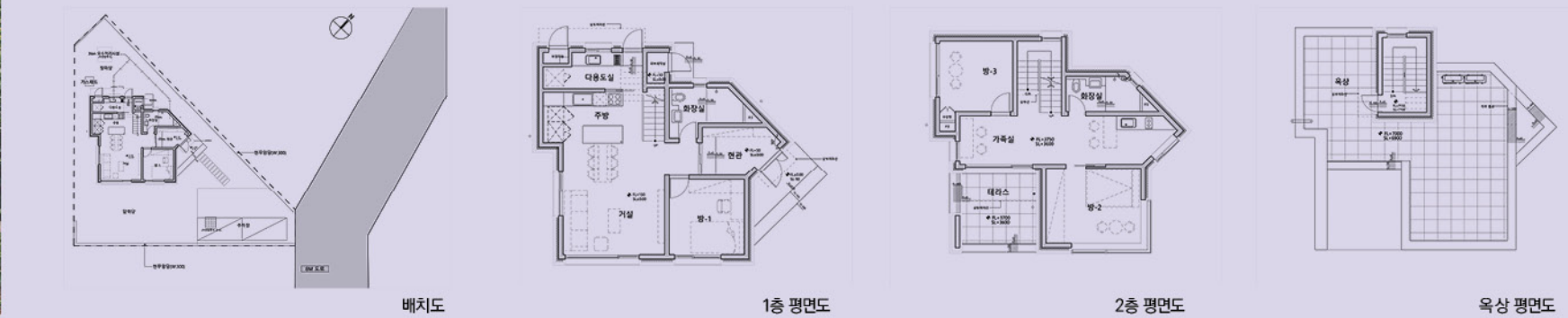
손승광 한국주거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시대 주택건설산업의 과제’란 주제를 놓고 조형근 건설공정관리학회 광주전남회장, 오동식 대라



제주 화순리에 위치한 주택은 전면으로는 제주 산방산이 보이고 날씨가 맑을 때는 한라산이 보이는 장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견고한 검은 벽돌 외관은 제주의 현무암과 토양에 어울리게 설계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 곳곳이 서있는 듯 단단한 인상을 고려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1층 24평 2층 20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층이 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복도 폭을 기존보다 크게 하여 탁 트인 개방감을 주었고, 넓은 테라스가 특징이며 간이 주방이 설치 되어 2층에서도 간편하게 주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특히 2층의 각 방은 산방산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어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수건설 회장,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 등 참여하여 열린 종합 토론을 벌였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토론에서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설계 적용,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강화를 제시했다”며 “시대에 대응하며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씨원리조트 자은도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23일 체결을 통해 회원 등 임직원 할인혜택 제공...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10월 2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와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건축사회원 및 회원사 직원은 숙박, 워터파크, 연회장 대관료 정상이 대비 20~60% 감면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52333번을 참조하면 된다.

‘친환경 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및 주요 설계 적용 기술’ 세미나 개최

(사)호남녹색건축연구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공동 주최·주관



(사)호남녹색건축연구원과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친환경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및 주요 설계 적용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호남녹색건축연구원 김흥식 이사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원 및 사무소 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1교시 ‘친환경 관련 건축물 인증제도 소개’라는 주제로 생산성본부인증원 김동울 본부장, 2교시 ‘친환경 관련 건축물 설계 적용 기술’이라는 주제로 생산성본부인증원 남택유 본부장, 3교시 ‘친환경 관련 건축물 설계 사례’ (주)삼우종합설계사무소 정용식 상무 강연으로 진행됐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현재 환경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 관련 건축물 인증제도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건축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임기만료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분야별로 총 91명 모집...



(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은 건축법 제4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구성을 위하여 오는 11월 23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축 조례 개정(안), 건축계획심의 및 구조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설계, 경관·색채·디자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조경 등 11개 분야로 지원 자격은 건축사, 관련 분야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접수는 23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이정석 건축사 / 이오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39, 2층 203호
- **결혼**
 - 이경행 건축사 /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 아들 결혼 - 11월 30일(토)
- **부고**
 - 김선채 건축사 / 뉴텍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0월 26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의원
- 전남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장동근린생활시설

김미영 건축사
(주)금양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제B동 201호
Tel. 061-334-2246

대지위치 : 광주 동구 장동 73-3번지 / 대지면적 : 350.40㎡ / 건축면적 : 206.88㎡ / 연면적 : 646.91㎡ / 규모 : 지상 5층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대리석



제3기 전라남도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2년간 도내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대해 논의...



(사진 = 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달 18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기 최일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와 함께 향후 2년간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사업에 대해 기획

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설계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0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여 공공건축사업에 98명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81회의 자문을 실시, 지역 공공건축의 품질·품격 향상에 기여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제3기 공공건축가들이 전남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건축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초록우산 전남본부에 400만원 후원 지난 14일 '남도사랑 아이사랑'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이경일 회장)는 지난달 14일 사각지대 아동지원을 위한 '남도사랑 아이사랑'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초록우산 전남본부에 가족돌봄 아동 지원금 4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전남 내 소년·소녀가장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8명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집중호우 피해지역 물품전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경일 전남건축사회장은 “가족돌봄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

를 결정하게 됐다”며 “전남건축사회는 작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목포아동원 후원 물품 전달식 지난달 21일 아동복지시설에 업소용 냉장고 후원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달 21일 전남 목포시 일원 아동원을 방문하여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업소용 냉장고(300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화순군,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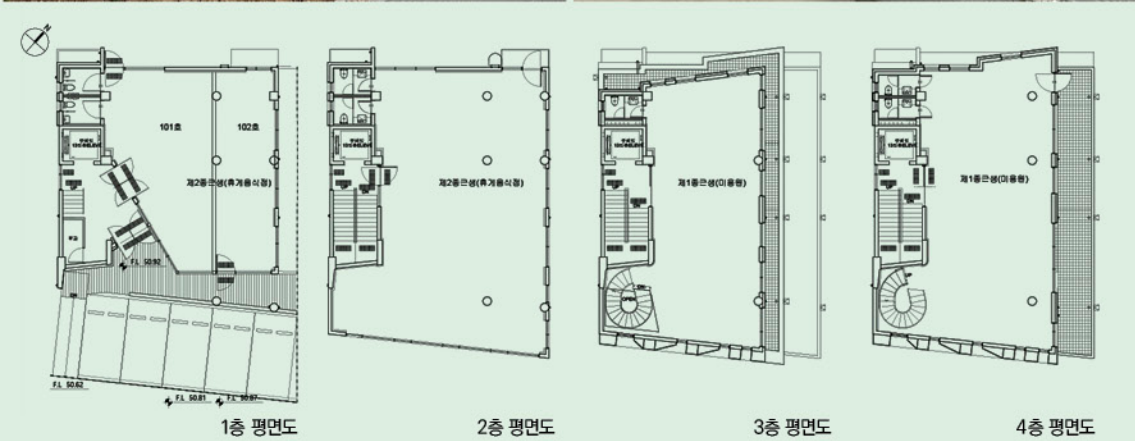
(사진 = 화순군청 제공)

전남 화순군은 지난달 8일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축사 및 용역 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 발행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대비, 건축조례 개정 사항 안내,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화순군은 인허가 설계 과정부터 사전 협의를 통한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신규 시책을 추진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최근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건축 공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는 설계와 감리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 속 근린생활시설들이 기반한 가로를 걸어가 보면 같은 면을 가진 건물들이 양쪽으로 들어서 보행자 공간을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든다. 이용자의 시선에서 1층의 공간은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내부의 모습이 궁금증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장동근린생활시설은 저층부의 필로티 공간을 내어주어 주차 공간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층별 테라스 외부 공간을 만들어 옥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돌출부에 대한 재료의 변화로 지나가는 보행자들로 하여금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선택해 정면뿐만이 아닌 여러 각도와 시선으로 봐도 지루하지 않은 근린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내부 공간에서도 모든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로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1층은 도시 속에 자연을 부르는 마당을 제공하고, 3층 이상부터 마용원의 투박한 대기 공간을 옥외와 같이 활용하도록 평면을 제시했다.

”

순천대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진흥 부문 우수상’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시상식 개최



국립순천대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가 지난달 30일 ‘2024 한국 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진흥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으로서, 우수한 건축

물을 발굴하고 건축의 공공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최 및 주관하고 있다. 이동희 교수가 수상하는 건축문화진흥 부문은 미디어, 건축 활동,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하게 건축문화진흥의 기여도, 활동 지속성 등을 심사해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1981년 인물과 풍경 사진촬영을 시작으로 2000년대부터 건축문화 대중화 및 한국전통건축 미학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건축작품 사진을 촬영해 왔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수한 건축사진 작품을 다수 촬영하여 출판·전시·강연을 통해 국내외에 건축 문화와 건축 미학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일본과 미국에서 9차례 개인초대전 등 국제건축도시 디지털 사진 공모전, 대한민국 한옥 사진 공모전, 광주건축도시 사진 공모전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경력 등, 현재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월간잡지 및 건축문화사랑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이동희 교수는 “건축물은 사진을 찍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건축에 대한 이해와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연면적 850㎡, 2개층 규모로 조성 예정...



(사진 = 설계 공모 당선작 /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터 설계 공모에서 서울 소재 종합 건축사사무소 매시즈(김의동 건축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공모에는 11개 참가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응모작을 제출했

며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순천시는 “당선작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어울림터’라는 주제로, 기존 덕연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잘 융합된 설계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립 사업에는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며 행정복지센터 북측 부지에 연면적 850㎡, 2개 층 규모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4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희 덕연동장은 “1층은 민원과 행정업무 전용 공간 및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2~3층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며 “이같은 점에서 당선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안병욱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35, 203호
- 김지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원 / 전남 순천시 왕궁길 26, 2층

• 변경(소재지)

- 박환호 건축사 / 무용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미래타워 402호

• 결혼

- 김정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진 / 자녀 결혼 - 10월 5일(토)
- 이상권 건축사 / 동림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0월 12일(토)
- 서계원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1월 9일(토)
- 이기상 건축사 / 기상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1월 9일(토)

• 부고

- 이대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성 / 모친상 - 10월 4일(금)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전북 회원 수상작만 표기) ※ 자세한 내용은 <http://www.jbaf.or.kr/> 참조

- ◎ **시상목적** :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한.
- ◎ **공모대상** : ○ 사용승인 공공 부문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 사용승인 민간 부문 : 주거(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건축물)
비주거(주거용도 이외의 건축물)
한옥(한옥구조 건축물) 또는 대지의 조경(단독 및 공동주택)

금상(사용승인 부문 비주거 분야) ‘작은문화공간 카페 든손 + 작은책방 책든손’

설계자 : 이일우 건축사 / 우연 건축사사무소

나의 노년의 삶은 어떨까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젊어서는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노년에는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있으면서 취미도 할 수 있는 곳이 한곳에 함께 있길 꿈꾼다. 건축주는 그런 공간을 이곳에 만들어 전시와 독서를 하며 일도 하고 자연도 같이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대지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곡리 71 외 4필지 / 대지면적 : 932㎡ / 건축면적 : 301.73㎡ / 연면적 : 370.7㎡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1세대)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와이드벽돌, 징크판넬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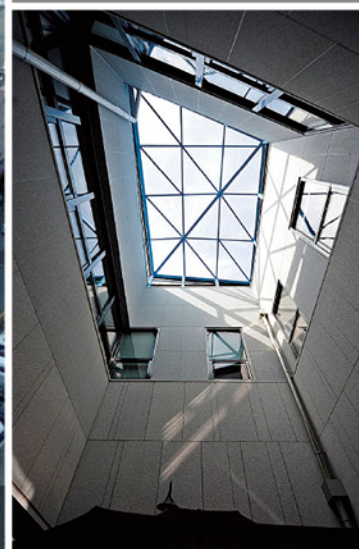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은상(사용승인 부문 비주거 분야) ‘박종혁 믿음병원’

설계자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90 / 대지면적 : 2,152㎡ / 건축면적 : 803.60㎡ / 연면적 : 4,517.91㎡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용도 : 의료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화강석바너구이 외

- ◎ 응모자격 :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 접수기간 : 2024. 10. 1.(화) ~ 10. 2.(수), 09:00 ~ 18:00
- ◎ 심사 및 수상작 발표 : 2024. 10. 11.(금) ~ 10. 14.(월)
- ◎ 수상작 시상 : 2024. 10. 29.(화)
- ◎ 작품전시 : 2024. 10. 29.(화) ~ 11.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
- ◎ 수여 내용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차용 기념동판

◎ 심사위원 : 8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도의원	김이재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신태용
총괄건축가	김준영	한국사진작가협회	염재청
군산대학교 교수	이영욱	(전)전북특별자치도청	국철인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권중곤	(전)전북특별자치도청	안수한



대지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60 / 대지면적 : 15,127.50㎡ / 건축면적 : 1,556.04㎡
연면적 : 5,792.70㎡ / 건폐율 : 10.28% / 적률 : 33.27%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철길마을 문화플랫폼’

설계자 :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선태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413-1, 416-2 / 대지면적 : 2,961㎡ / 건축면적 : 309.57㎡
연면적 : 309.57㎡ / 규모 : 지상 1층 3개동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전통 목구조 / 주요마감 : 회백가람, 팔작지붕



은상(사용승인 부문 한옥 분야) ‘석명정’

설계자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GLIESE

- # 현상설계 건축 CG
- # 가상공간 솔루션-게임 엔진 기반 개발팀 운영
- # 3D 애니메이션
- # 빠르고 정확한 프로젝트 수행

**건축설계의 아이디어,
현실적인 디테일로 구현합니다!**

“건축설계를 현실감 있게! 건축 CG의 완성”

“디테일을 살린 고품질 CG로 현상설계 경쟁력을 높이세요.”

빠르고 정확한 작업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가십시오.
디자인의 첫인상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주)글리제와 함께하십시오.



웹사이트 www.vzip.co.kr

이메일 gliese5050@naver.com

고객센터 1522-0943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임경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이우 광주 남구 천변좌로370번길 8-1, 지하층 T. 062-675-3335 / F. 062-675-3334	문강욱 건축사 (주)승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증흥로 71, 2층 T. 062-526-8660 / F. 062-526-8663	진수성 건축사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신창로 105, 5층 T. 062-672-2230 / F. 062-672-2232	정명환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지웃 광주 서구 마북로 67, 3층 T. 062-375-2800 / F. 062-375-7100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서구 풍금로 61, 3층 T. 062-676-2267 / F. 062-653-2267	김민호 건축사 너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1로 7, 502호 T. 062-654-0370 / F. 062-651-0370	심상철 건축사 이소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유림로 100, 3층 T. 062-511-9408 / F. 062-511-9409	유영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들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88, 8층 805호 T. 062-710-7630 / F. 062-710-7631
김삼현 건축사 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T. 062-376-0300 / F. 062-376-0054	왕성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다예 광주 서구 동천로10번길 35-4, 2층 T. 062-434-4634 / F. 062-528-4634	김옥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지움 광주 남구 군분로 134-1 3층 T. 062-363-0855 / F. 062-364-0855	김종일 건축사, 김창오 건축사 (주)더시선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604A호 T. 062-975-0707 / F. 062-975-0708
김도석 건축사 미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77, 2층 T. 062-434-1532 / F. 062-382-1532	김익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우인 광주 광산구 신창로72번길 22, 4층 403호 T. 062-961-2331 / F. 062-961-2335	정상채 건축사 초석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 062-527-8043 / F. 062-527-8044	김봉성 건축사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운천로92번길 1, 3층 T. 062-383-1759 / F. 062-376-2281

일우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선영 건축사

광주 봉선동 태경빌딩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 T. 062-367-7151 / F. 062-367-7153 / 시공 : 서우종합건설(주)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재한 건축사

보성 주봉리 OO아파트 신축공사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337, 3층 / T. 062-962-8267 / F. 062-962-8708

(주)승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재웅 건축사

보이지 전월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89 상무구영드림빌 408호 / T. 062-375-6282-3 / F. 062-375-6284

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동원 건축사

북구 유동 H&J 빌딩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33-2, 301호 / T. 062-224-0060 / F. 062-224-0061

이영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문 건축사

홍성내포신도시 JS 오피스텔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210호 / T. 062-515-0432 / F. 062-975-0358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대표 김준철 건축사

광주 동구 금동 비테라인테라스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21, 4층 401호 / T. 062-385-0320 / F. 062-384-0325